

보수단체 광주집회 땀 강력 조치

광주시, 다음달 3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이용섭 "코로나19 심각 상황 5·18 정쟁 도구 안돼"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일을 앞두고 자유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가 예고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유연대 등 이른바 보수단체가 16~17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6일 광주 동구 일대, 광주 시청 앞, 5·18 기념문화센터 앞 등에 추가로 집회 신고를 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유연대가 집회를 예고한 6일은 정부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첫날"이라며 "국민 모두가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야 하고, 지자체의 방역역시 더욱 물 켜고 있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면서 긴급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유연대 등이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16~17일 금남로 일대 집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자유연대 등이 추가로 집회를 신고하자 더 포괄적인 명령을 발동했다.

올해는 5·18 40주년을 맞는 해인데도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제외한 대부분 기념행사가 취소됐다.

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온 국민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이념 갈등과 지역감정을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해 5월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5·18 유공자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목포역 등 25곳 5·18사적지 지정

표지석 등 통일 체계적 관리

전남도는 목포역, 나주 금성관 앞, 화순 너릿재, 해남 우슬재 등을 비롯한 8개 사군 25개소를 5·18사적지로 지정·고시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전남도내 76개소에 5·18표지석과 안내판이 설치·관리돼 왔으나, 각 지자체별로 표지석의 디자인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설물로만 관리된 5·18역사 현장을 5·18사적지로 지정하고 통일된 표지석 등 디자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두 차례에 걸쳐 사적지 현장 방문 평가를 추

진했다. 전남도는 5·18사적지 지정을 위해 9개 사군으로부터 47개소의 후보 지역을 추천받아 역사적 진실성, 상징성, 대표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해 전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8개 사군 25개소를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5·18사적지는 ▲목포역, 중앙공설시장 옛터 등 목포시 5개소 ▲옛 금성파출소 예비군 무기고, 남도문 광장 등 나주시 5개소 ▲화순군청 앞 일대, 너릿재 등 화순군 3개소 ▲강진읍 교회 등 강진군 2개소 ▲우슬재, 해남군청 앞 광장 등 해남군 5개소 ▲영암읍 사거리 등 영암군 3개소 ▲부안버스터미널 등 무안군 1개소 ▲함평공원 등 함평군 1개소 등이다.

사적지는 사군별 주요 항쟁지, 희생자

발생지 등 역사적 대표성이 뚜렷한 장소 위주로 지정했으며, 일련번호는 사적지 순례 관광과 역사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유리하도록 시군 단위로 사건 전개를 감안해 순서를 부여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적지 지정을 계기로 관리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남도오월길 코스 개발과 해설사 양성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장은 "이번 사적지 지정이 5·18역사 현장을 보존해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광주 북구갑 조오섭

"싸우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만들것"

광주 인공지능 중심 메카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주력 지역 당선인과 발전 위해 소통 현안사업 해결 국토위 신청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정권을 재창출하고, 이제 싸우는 국회를 멈추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4·15총선 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당선인은 6·7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폴뿌리' 정치인답게 5일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중단해서는 안된다. 오는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데 국민이 화답했고, 광주의 명령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광주-전남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4기 민주정권 재창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됐다"면서 "민주당 중심에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연대와 소통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랜 기간, 텃밭을 지켜온 정치인으로서 지역 공약에 대한 소신도 강했다.

그는 "광주는 미래 일자리로 인공지능을 선택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가 몸담았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한 사업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연계해 '인공지능육성 특별

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타·시도 예타면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조원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제 광주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 북구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또 북구 발전을 위해 "광주는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발휘할 풍부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인구 유입과 함께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며 "북구갑 지역의 고질적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기간 동안 조 당선인은 "4·19혁명 정신에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화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의정활동에 통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당선인은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는 단체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역사 속

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며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것으로 시작된 4·19혁명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쓰러져 간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북구갑은 호남의 최대 격전지로 손꼽혔다. 민주당 당내 경선 초기부터 광주 북구갑에 대한 전략 공천설이 떠돌면서 마음을 졸였고, 공천을 받은 뒤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현역 김경진 의원과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이에 조 당선인이 선택했던 선거 전략은 코로나 19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역 운동이었다. 조 당선인은 캠프 개소식 대신 단체 현역로 선거를 시작했다. 캠프 내 자원봉사자 지지자들까지 현역에 참여하면서 '피를 나누었던 5월 정신'을 실천하며 어려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조 당선인은 "5월 정신은 희생과 나눔이다. 아픈 시민을 위해 아낌없이 피를 나누었던 광주 시민 정신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어 냈으며, 이 같은 열망을 잊지 않는 올바른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방음터널' 추가, 광주역 개발 남북관통도로 개설 등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는 "조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선택에 한계가 있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근무 경험이 있고, 균형위 파견 국토부 직원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하다"면서 "국토위 상임위 배정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300여 기업 참여 17일까지

전남도는 오는 5월 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온라인 박람회는 지난 2016년부터 일자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왔으며, 올해 우수 중소기업과 에너지밸리기업 등 300여개 기업과 구직자 2천여 명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취업

상담과 면접 알선 등 대면 고용서비스의 제공의 제약으로 오프라인 박람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직된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람회 참여기업 모집과 홍보, 기업·구직자 매칭 등은 인터넷 취업포털 잡코리아(myjob.jobkorea.co.kr)를 통해 이뤄지며, 에너지밸리기업, 조선업 등 채용관 운영과 기업 채용공고 등록, 구직자 이력서 등록, 인·적성검사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백택후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취업 기회가 줄어 구직자들이 많이 상황이다"며 "온라인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고,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며, 지난해 653개 기업이 참여해 286명을 채용했다. 채용자 분석 결과 20~30대 청년층이 주를 이루며, 40~50대 중장년층도 전체 채용인원의 15%인 4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